

##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개발\*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치료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인지행동적 모델로 부부문제를 개념화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 연구가 미흡한 인지행동적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것이다. 특히 부부 불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부정적 부부 지각을 평가하는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부의 일반적인 생활영역별로 총 60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사하여 최종 48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관여 불균형 지각’, ‘독선 비존중 지각’, ‘애정 무관심 지각’, ‘종교 불화 지각’, ‘배우자 무능 지각’ 등의 5가지 유형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각 유형들의 부부 불만족도와와의 상관은 매우 높았으나 ‘종교 불화형 배우자’ 요인은 예외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부부 불만족도와와의 상관은 높았지만 다른 요인들과 역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애정 무관심형 배우자’ 요인이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 부부 지각의 다른 측면들이 시사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부부문제, 부부지각, 부부 불만족,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

† 교신저자 :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 02-2128-3064, Fax : 02-2128-3111, E-mail : jskim@sdu.ac.kr

가족 성원간의 부정적인 행동 교환의 감소, 의사소통의 개선 및 문제해결 기술 개선은 부부 문제에 대한 행동치료에서 주요 목표였다. 이러한 행동적 접근의 개입 방법에 더해 가족 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재구축화 기법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그 전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및 부부관계에서 인지행동적 치료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Dattilio, 1993; Epstein, Baucom, & Daiuto, 1997; Epstein & Baucom, 1993).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연구자들은 인지, 행동 및 정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관계에서의 역기능을 매개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또한 부부 사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과 일치하는 행동들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두기 때문에 개인 내부의 인지적 사건에 초점을 두어야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Dattilio, 1994; Dattilio & Padesky, 1990; Bradbury & Fincham, 1991).

Epstein, Schlesinger와 Dryden(1988)의 부부 문제에 대한 인지적 매개모델은 배우자 각자가 상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하는 인지 과정을 부부관계의 역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지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배우자 개인이나 배우자의 특정 행동 및 부부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지각과 사고의 인지 과정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현상이다. 배우자 각자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서로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상대 배우자의 행동에 대

한 의도나 원인을 추론하고, 관계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다양한 부부 생활사건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추론하고 의미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평가하며 부부 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과정은 많은 경우에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Beck(1976)은 이렇게 매우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신속하게 마음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잘 자각되지 않는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 불렀으며 이러한 자동적 사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나 부부 생활사건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주의 깊게 조사하면 상대 배우자와 배우자 행동 및 관계에 대한 지각과 사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 상대 배우자 및 부부 사건에 대한 지각과 사고 과정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역시 별 수 없어, 내 남편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 라든가 ‘어떻게 저런 말을,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해, 우리 관계는 항상 일방적이야’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지각과 사고의 내용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추론과정에 해당하는 지각과 사고 과정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데 관계의 양상이 역기능적인 부부들이 추론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Bradbury & Fincham 1990; Baucom & Epstein 1990; Bradbury, Fincham, Beach, &

Nelson, 1996). 연구 내용에 따르면 부부사이의 갈등이 많은 배우자들은 그렇지 않은 배우자들에 비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상대 배우자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성격특성으로 귀인한다. 또한 그런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면에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귀인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가진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가진 동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유사한 상황임에도 자기 배우자가 가진 동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행동에 더 주의를 두며 부정적인 평가를 확대한다(Beck, 1988; Dattilio, Epstein, & Baucom, 1998; Floyd & Markman, 1983). 배우자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형성되는 추론 과정을 통해 이러한 지각과 사고 내용이 과잉 일반화된 틀로 굳어지게 되면 부부관계에서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더욱 악화된다.

갈등적인 부부들의 귀인 경향은 흔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야기하는데, 상대 배우자를 ‘좋은 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어린 아기를 돌보는 일과 가사일로 녹초가 된 아내가 남편의 늦은 귀가 행동을 ‘내 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라고 해석하고 평가했다면 남편에게 보이는 행동 반응도 이러한 지각과 유사하게 적대적이거나 체념적일 것이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변하기 어려운 것이며 문제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라고 지각하게 될 때, 대부분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하기 쉬우며 상대 배우자에게 역기능적인 행동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서적으로 무망감이나 무력감 혹은 분노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Beach, Sandeen, & O’Leary, 1990; Jacobson, Holtzworth-Munroe, & Schmaling, 1989; O’Leary, Christian, & Mendall, 1994). 많은 부부 치료자들은 부부갈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은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각과정에서의 이러한 편향은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가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부부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진전을 가져오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상대 배우자나 부부 관계 사건에 대한 지각과 사고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부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지점을 찾아내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부부 지각 내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그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및 부부관계에서의 다양한 사고의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임상 현장이나 인지행동적 모델에 따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의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부부의 불만족을 평가하는 척도들로서는 Spanier(1976)의 결혼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Kayser(1996)의 결혼 불만 척도(The Marital Disaffection Scale: MDS), Rosch, Frazier와 Bowden(1981)의 결혼 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및 Snyder(1997)의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Dissatisfaction Inventory:

MSI) 등이 있다. 이 척도들 중 Snyder(1997)의 결혼 만족도 검사는 적절한 표준화 절차를 거쳐 비교적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부부 관계에서의 불만족과 관련된 배우자들의 감정, 신념, 역기능적 사고, 및 행동 등에 대해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행동적 요인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나 이론적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부부의 지각 내용에 초점을 두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인지행동적인 부부 관계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있지만(이창숙, 유영주, 1998; 이현숙, 1999) 인지행동적 모델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 축을 이루는 부부의 지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 부부들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지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 법

### 참여자

일반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 대학의 기혼자 기숙사 거주 부부, 부부관계 향상 특강 참여자 및 교회의 부부 신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기혼자 424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예비문항 60개로 구성된 리커트형(5점 척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자가 186명, 여자가 238명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남자가 41.4(표준편차= 7.0)세, 여자가 38.8(표준편차= 6.8)세였다. 평균

결혼기간은 11.8(표준편차= 7.7)년, 평균 자녀수는 1.6명이었고 가계 총 월 소득은 224만원이었다.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혼자 281명을 대상으로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남자가 115명, 여자가 16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5(표준편차= 6.8)세, 평균 결혼기간은 11.8(표준편차= 7.6)년, 평균 자녀수는 1.9명이었다. 가계 총 월 소득은 229만원이었다.

### 도구

####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GDS)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제작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의 하위 척도이다. 권정혜 등(1999)은 Snyder(1997)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번안, 수정하여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를 제작하였는데 총 1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2002).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 제작 시,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92이었고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의 문항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으로 구성된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응답 형식을 변형하여 원 척도의 예-아니

오 반응 대신 5점 척도 상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이었다.

**부부신념 척도(Marital Beliefs Scale: MBS)**

김진숙과 권석만(2009a)이 개발한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는 부부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과 배우자, 부부 상호 역할 및 부부관계에 대한 가정, 기대 그리고 기준 등의 신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신념이 경직되고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임을 반영한다.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반분 신뢰도는 .78이었다.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

**(Korean Marital Feeling Inventory: K-MFI)**

O'Leary와 Arias(1983)의 17문항으로 구성된 긍정 감정 질문지(Positive Feeling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를 개발하였다(김진숙, 권석만, 2009b). O'Leary 등(1983)의 긍정 감정 질문지는 부부관계에서 자신 및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치료로 인한 변화에도 민감하여 부부치료 효과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결과 단일요인으로서 내적 합치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97이었으며 반분 신뢰도는 .9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Major Marital Life Events Questionnaire: MMLEQ)**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한 생활 사건을 나열한 질문지로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경제, 건강, 죽음, 원가족 문제, 배우

자 가족문제, 임신과 출산, 외도, 직업, 부부폭력, 성기능 곤란,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동거형태 변화, 자녀문제 등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28개 항목의 부부 사건을 나열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어났는지를 '예', '아니오'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총점은 부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생활사건이 일어난 개수에 해당한다.

**절차**

척도의 제작을 위해서 총 60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예비문항 질문지를 1차로 424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여 요인 분석 절차를 거쳐 최종 48문항의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제작된 48문항의 질문지를 2차로 281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다. 2차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각 하위 척도 별로 문항-하위 척도 상관계수와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고 부부 불만족 지각과 관련되는 전반적 부부 불만족, 부부신념, 부부감정 및 부부 생활사건 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질문지가 부부 모두에게 실시되었으므로 문항 내용은 동일하게 하되 남편용과 아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즉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묻는 문항들에서 남편용은 주어가 맥락에 맞게 '아내는'으로, 아내용은 '남편은'으로 시작하였으며 문항내용에서도 응답자에 맞게 '시가'와 '처가'로 언급하였다. 그 외의 문항 내용은 동일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예비문항 수집과 전체적

인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비 문항 수집

부부관계에서의 지각과 사고는 주로 현재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또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문항들은 부부들이 자신의 부부관계나 부부 생활사건, 상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해당하는 인지 내용을 가능한 한 포괄하도록 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영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체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로써, 부부 제반관계, 의사소통 및 행복증진 프로그램(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에서의 부부 평가는 결혼 만족도 척도를 제외하고 10개의 생활영역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에서 재인용).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는 결혼생활 영역으로서 11개의 세부 영역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권정혜 등, 2002). 부부 관찰 점검표(Spouse Observation Checklist; SOC)는 배우자들의 행동을 12개의 생활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Weiss, Hops & Patterson, 1973). 이처럼 결혼생활 영역을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을 때, 측정하고자 하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별적인 각 하위영역별 점수들을 통해 부부문제를 보다 간편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해석과 평가의 지각 내용이 전체 부부생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거론되는 12가지의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표집 하였다. 12가지 생활영역은 경제, 애정표현, 가사일,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성관계, 자녀 양육, 배우자 가족, 직업, 친구관계, 종교, 여가와 관련된 영역들이다. 이들 영역에서 먼저 갈등 상황에 대한 지각, 부부관계 및 배우자에 대한 지각 내용으로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예비 문항 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자 및 연구실 동료의 지인 중 기혼자 37명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에서 최근에 있었던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배우자나 부부관계에 대해 들었던 생각을 가급적 자세히 적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문장을 구성하여 12개의 생활영역 별로 문항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부부문제에 대한 대학의 상담소를 찾은 기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재 부부의 갈등 문제를 듣고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이 자주 떠오르는지 그 사고내용을 수집하였다. 이때 수집된 문항들을 각 12개 해당 영역별로 추가하였다. 예비문항 구성의 마지막 절차로서 안면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상담 또는 임상 심리 전문가 5명에게 수집된 문항들에 대해 척도 문항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3명 이상의 전문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각 생활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순위대로 평정하여 12가지 생활영역에서 각각 5문항씩을 선정하였다. 이

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60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가 완성되었다.

### 자료수집

결혼한 남녀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자료를 포함하여 결혼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를 실시하였다. 1차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424명의 조사대상자들에게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60문항의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2차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281명에게 최종 48문항으로 제작된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와 함께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 부부신념 척도,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 및 주요 부부생활사건 질문지를 함께 실시하였다. 심리학과 대학원생에게 검사지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들이 직접 기혼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에 응답할 시간적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지를 건네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이때 부부가 모두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배우자끼리 상의하지 말 것과 상대방의 응답 내용을 확인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하반기에 1차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수의 확대를 위해 2009년 상반기 한 차례 더 수집을 하였다.

### 결 과

척도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60개 문항에 대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analysis)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자료

를 별개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전체 요인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성별에 따른 요인구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이 11개가 도출되었다. Scree 검사를 통해 볼 때 한 개의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설명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유치 1.8이상에 해당하는 요인 수 5개가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에 해당하는 5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에 포함되었지만 설명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여 총 52문항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으로 나타난 한 개의 문항을 다시 제외하였으며 또한 부부관계나 배우자 및 배우자 행동에 대한 사고의 측면보다는 느낌을 평가한다고 생각되는 3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여 최종 4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얻었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표 1과 같다. 동일문항 내용으로 이루어진 남편용과 아내용 전체를 요인분석한 결과 이며 표 1에서는 아내용 질문지 문항을 기본 예시로 하고 남편용 질문지 문항은 괄호로 표시하였다.

요인 1은 ‘남편은 친구관계가 지나치게 많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22번)’, ‘남편은 여가시간을 주로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에 쏟는다(48번)’ 등과 같이 주로 배우자가 가족이나 부부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생활중심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지각을 담고 있었다.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우자의 관여도가 낮아 자신이 관계에 더 투자하게 됨에

표 1.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요인구조 계수 및 문항-총점 상관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문항-총점 상관
10.	남편(아내)에게는 가족 보다 자신의 친구 일이 더 중요하다	<b>.81</b>				.30	.71**
22.	남편은(아내는) 친구관계가 지나치게 많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	<b>.79</b>				.33	.62**
60.	남편은(아내는) 나와 의 여가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요시한다	<b>.75</b>					.78**
17.	남편은(아내는) 부부사이의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하려고 하므로 신뢰가 잘 안간다	<b>.75</b>					.76**
21.	남편은(아내는) 직장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 한다	<b>.74</b>					.65**
48.	남편은(아내는) 여가시간을 주로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에 쏟는다	<b>.73</b>					.77**
40.	남편은(아내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b>.72</b>		-.38			.80**
27.	남편은(아내는) 집안일에 성의가 없다	<b>.71</b>					.73**
39.	남편이(아내가) 집안살림에 무관심한 편이어서 내가 안해도 될 일을 떠맡게 된다	<b>.63</b>					.71**
7.	남편이(아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	<b>.61</b>					.66**
54.	우리 부부의 성관계에서 남편은(아내는) 주로 자신의 욕구만 우선시 한다	<b>.53</b>	.31				.65**
24.	우리 부부는 취미가 달라서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 힘들다	<b>.50</b>					.67**
3.	나와 남편(아내) 사이의 가사분담은 불공평하다	<b>.40</b>					.43**
41.	남편은(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는 투로 말을 잘 한다	<b>.85</b>					.79**
28.	남편은(아내는) 내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직선적으로 표현한다	<b>.80</b>					.71**
53.	남편은(아내는) 자기주장만 강해서 대화를 해봐야 시간 낭비다	<b>.76</b>					.77**
20.	남편은(아내는) 시댁(처가) 식구들 앞에서 우리 집안(친정)본가)이나 나를 무시한다	<b>.75</b>					.65**
31.	남편은(아내는) 자녀 앞에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b>.74</b>					.67**
29.	남편은(아내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에 내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	<b>.74</b>					.80**
52.	남편과(아내와)는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 내 마음 속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별 도움이 안된다	.43	<b>.73</b>				.81**
16.	남편은(아내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	.31	<b>.68</b>				.74**
55.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은(아내는) 자녀 교육에 알맞은 성격이 아니다	.40	<b>.66</b>				.76**
58.	남편은(아내는) 나의 친구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b>.64</b>					.62**
8.	남편은(아내는) 자신의 본가족(시가)처가)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 집안에 잘하지 않는다	<b>.63</b>					.71**

19.	남편은(아내는) 대개 자기감정에 치우쳐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혼낸다	.62		.64**
9.	남편은(아내는) 나의 직업을 무시한다	.60	.48	.61**
34.	남편은(아내는) 나의 친구관계에 불필요한 간섭이 많다	.57		.50**
30.	남편은(아내는) 성관계를 요구할 때 나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다	.30	.56	.66**
45.	남편은(아내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푼다	.55		.59**
32.	남편은(아내는) 자신의 본가족(시가)이 우리 부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도록 내버려 둔다	.54		.60**
44.	남편은(아내는) 결혼을 했는데도 자신의 본가족(시가)이 일에 지나치게 나선다	.46	.30	.53**
6.	남편은(아내는) 우리의 성관계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85		.59**
2.	남편(아내)의 애정표현이 전과 달리 소극적이어서 내가 싫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82		.56**
38.	남편은(아내는) 애정표현에 무관심해서 가끔 남편이(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81		.76**
26.	남편은(아내는) 나의 애정표현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한다	-.76		.57**
18.	우리 부부의 성관계 횟수는 다른 부부에 비해 적은 편으로, 부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3		.68**
4.	남편이(아내가) 나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67		.70**
36.	남편은(아내는)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다	-.60		.70**
50.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남편은(아내는) 나에게 대한 애정표현을 안 하는 편이라서 때로 남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다	-.48		.49**
35.	남편/아내(혹은 남편/아내의 집안)와 나(혹은 나의 집안) 사이에 종교가 달라서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	.85		.34**
59.	남편이(아내가) 나의 종교생활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84		.48**
23.	남편은(아내는)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나에게 강요한다	.73		.32**
11.	남편(아내)의 지나친 종교활동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61		.44**
49.	남편은(아내는) 경제적인 면에서 무능하다		.84	.58**
1.	우리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남편(아내)의 무능함 때문이다		.81	.52**
33.	남편은(아내는) 자주 이직을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2	.74	.61**
13.	우리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남편이(아내가)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9	.64**
15.	남편이(아내가) 가사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아내가) 무능력하게 보인다		.50	.43**

\*\*  $p < .01$

<sup>a</sup> 요인1: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2: 독선 비존중 지각, 요인3: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4: 종교 불화 지각, 요인5: 배우자 무능 지각

다른 불균형에 대한 지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을 ‘관여 불균형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1요인의 설명변량은 41.1%이었다.

2요인은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는 투로 말을 잘한다(41번)’,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에 내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29번)’ 등과 같이 배우자가 자신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주장이나 간섭이 지나치다고 하는 지각을 담고 있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요인의 명칭을 ‘독선 비존중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55번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은 자녀 교육에 알맞은 성격이 아니다’의 문항은 외견상 2요인의 다른 문항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요인 부하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의 비존중 태도가 자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지각으로 해석하였다. 2요인의 설명변량은 8.8%이었다.

3요인은 ‘남편은 우리의 성관계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6번)’, ‘남편은 나의 애정표현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한다(26번)’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애정에 대한 의문, 애정적 무관심 및 애정 결핍의 지각을 담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36번의 ‘남편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문항의 경우 요인 부하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배우자 및 가족과 애정적인 여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하였다. 3요인의 설명변량은 4.5%이었다.

4요인은 ‘남편(혹은 남편의 집안)과 나(혹은 나의 집안) 사이에 종교가 달라서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35번)’, ‘남편의 지나친 종교 활동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11번)’ 등과 같이 종교적인 갈등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4요인의 명칭을 ‘종교 불화 지각’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4개 문항이 이에 포함되었다. 4요인의 설명변량은 4.1%이었다.

5요인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남편의 무능함 때문이다(1번)’, ‘남편이 가사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인다(15번)’ 등의 문항으로서, 대부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함을 표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배우자 무능 지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5요인의 설명변량은 2.9%이었다. 5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약 61.4%로 나타났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한 바대로 .31 ~ .50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지만 3요인에 해당하는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역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3요인의 문항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배우자의 소극적인 애정표현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애정 무관심 지각을 많이 하는 배우자일수록 상대 배우자의 다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각은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견해

표 2.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요인상관 행렬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2	.50			
요인3	-.40	-.49		
요인4	.37	.42	-.31	
요인5	.51	.42	-.37	.33

에서 볼 때 이해가 쉽지 않다. 다른 측면의 부정적 지각이 높을 때 애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각은 무시되거나 한편으로 배우자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염려의 의미도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다른 요인들과 다르게 부부 불만족도와 관련을 맺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하위 요인 상관 계수와 내적 합치도 및 반분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제작된 48 문항 척도의 각 요인별로 문항-총점 상관 계수가 표1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은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가 .43에서 .80의 범위를 보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93, 반분 신뢰도는 .94이었다. ‘독선 비존중 지각’ 요인은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50에서 .81의 범위에 해당하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 반분 신뢰도는 .94이었다.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49에서 .76의 범위에 이르는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지니고 있었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 반분 신뢰도는 .91이었다. ‘종교 불화 지각’ 요인은 .32에서 .48 사이에 해당하는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나타냈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74, 반분 신뢰도는 .87이었다. ‘배우자 무능 지각’ 요인은 .43에서 .64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나타냈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 반분 신뢰도는 .88이었다. 5개의 요인 모두가 유의미한 문항-총점 상관을 보여주었고 내적 합치도 계수 및 반분 신뢰도도 대체로 높은 범위에 속했다.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제작된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하위 척도

표 3. 부부 불만족 지각척도의 요인과 부부 불만족 도와의 상관

부부 불만족 지각척도 요인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
관여 불균형 지각	.73**
독선 비존중 지각	.70**
애정 무관심 지각	.62**
종교 불화 지각	.26**
배우자 무능 지각	.60**

\*\*  $p < .01$

중 하나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 부부신념 척도, 한국판 부부감정 질문지 및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와 상관을 조사하였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는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긴다’ 등의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관계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제작된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가 부부 관계의 사건이나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해석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 지각 내용을 담고 있는 척도라 할 때,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조사 결과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와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은 .73, ‘독선 비존중 지각’ 요인은 .70,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62, ‘종교 불화 지각’ 요인은 .26, ‘배우자 무능 지각’ 요인은 .60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부부 관계에 인지행동적 모형을 적용했을 때, 부부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이거나 극단적인 신념은 결혼 생활에서 주요한 생활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욱 활성화되어 배우자나 부부

표 4. 부부 불만족 지각척도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총점	부부 불만족 지각척도
전반적 부부 불만족척도	.78**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	-.76**
부부 신념 척도	.31**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	.37**

\*\*  $p < .01$

관련 사건을 편향되게 지각하도록 이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지각 내용은 다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친다. 제작된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는 또 다른 절차로서 부부신념 척도,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 및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와 상관을 조사하였다.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총점과 전반적 부부 불만족도의 총점 사이의 상관이 .78로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긍정 감정을 평가하는 부부 감정 척도와는 높은 역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지닐 수 있는 신념의 경직성, 극단성 및 비현실성을 평가하는 부부신념 척도와는 .31로서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부부사건의 빈도를 측정하는 주요 부부 생활사건과는 .37의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사건이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신념은 부부의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갈등이 많은 부부들은 신념이 경직되고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이며 그러한 신념의 영향을 받

은 지각과정에서 오류가 많아 부정적 지각이 한층 증가하고 이러한 지각은 부부의 불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킨다(Epstein 등, 1993). 부정적 부부 생활사건과 경직된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이 부정적 부부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신념과 주요 부부생활사건이 본 척도와 유의미하지만 다소 낮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부신념 척도의 낮은 상관과 관련하여 부정적 부부지각이 부부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배우자의 신념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보다 각 배우자의 신념이 관계에서 얼마나 서로 수용되거나 조화되느냐 혹은 양립 불가능하여 갈등을 빚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고 하겠다. 또한 주요 부부생활사건 척도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이 1개에서 3개 사이의 경험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조사에서의 낮은 상관이 실제 관계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논 의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 개발의 주요한 목적은 한국 부부들의 부부관계 및 배우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사고내용과 그 유형을 조사하고 부부 불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부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12가지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영역에서 부부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배우자와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된 총 60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기혼자 424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예비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최종문항을 선별하였고 별도의 기혼자 281명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최종 48문항의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가 완성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의 문항 내용에 적절하도록 명칭을 부여한 결과, ‘관여 불균형 지각’, ‘독선 비존중 지각’, ‘애정 무관심 지각’, ‘종교 불화 지각’, ‘배우자 무능 지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가장 설명 변량이 높았던(41.1%) 요인은 ‘관여 불균형 지각’이었으며 이 요인에는 가사일 영역, 정서적 의사소통 영역,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영역, 자녀양육 영역 등 12개 생활 영역에서 수집되었던 문항들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Epstein 등(1993)은 배우자들이 자신의 결혼관계에서 일체감(togetherness)과 개인적 투자를 강조하는 기준을 지닐수록 부부 만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며 또한 배우자가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기준들이 결혼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는 부부 갈등의 가장 강력한 예언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이 부정적 부부지각의 가장 대표적 요인으로 도출된 것도 위의 선행연구에서의 제안과 일치한다.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일, 친구 관계, 취미에 몰두하여 부부가 함께하기 어려우며 불공평하게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부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부

부 지각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부부 불만족을 설명하는 타당한 척도로 판단되며 인지적 요인이 부부 불만족과 관련이 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할 때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부부 지각 요인 중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과 역 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표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문항-총점 상관에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의 문항-총점 상관에 비해 낮지 않은 수치로 부정적 부부지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과는 부정적 부부 지각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다른 요인들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관여 불균형 지각’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종교 불화 지각’ 요인은 배우자가 나의 종교생활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혹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한다고 하는 지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 무능 지각’ 요인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배우자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하는 지각 내용이 담겨 있다. ‘독선 비존중 지각’ 요인은 배우자가 나 혹은 나의 원가족을 비난, 무시, 간섭하며 독단적이라는 지각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애정 무관심 지각’ 요인은 배우자가 나에게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는 것 같다는 부정적 지각 내용을 담고 있으나 나아가 ‘배우자가 내가 싫어진 것은 아닌지’, ‘나를 사랑하는지’ 하는 점에 대한 염려가 포함되어 있다. 부정적인 지각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는 염려와 그 이면의 그러한 애정에 대한 바람이 본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요인과 차별적인 속성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종교불화 지각 요인을 제외하면 요인별 문항-총점 상관 이 .43에서 .81사이에 분포되었으며 요인별 내적 합치도도 .81에서 .94사이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이었다.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정적 부부 지각과 관련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전반적 불만족 척도, 부부신념 척도, 한국판 부부감정 질문지 및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와 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와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와는 .78과 -.76의 높은 상관을, 부부신념 척도와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와는 .31과 .37의 유의미 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부들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부부 지각의 유형을 명세화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정적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는 인지적 접근에서 부부 문제를 설명하고자 할 때, 신념과 지각 및 부부 불만족 사이의 일련의 인지적 과정에서 한국 부부들의 부정적 지각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 Epstein(1988) 등이 언급했듯이 부부 문제에 대한 인지적 매개모델은 배우자 개인이나 배우자의 특정 행동 및 부부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인지 과정을 부부관계의 역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지영역으로 간주한다. 부부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직면하였을 때, 각자가 지니고 있는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은 사건에 대한 지각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념이 경직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일 때 사고는 역기능적으로 활성화되어 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 부부관계에 대한 경직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지닌 배우자일수록 본 연구의 척도에서 부정적 지각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에 따라 지각 척도의 각 하위 유형이 차별적인 상관을 보이리라 추정할 수 있다. 추후 국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지모델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통해 갈등이 심한 부부들의 부정적 지각 내용 및 지각에 있어서 부부간 괴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한 바와 같이 부정적 부부지각의 유형에서 ‘애정 무관심형 배우자’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차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 지각의 특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는 종교가 없는 부부와 종교가 있는 부부가 혼재되어 있다. 질문지 내용상 종교에 대한 갈등이 시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에서 종교가 없는 부부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에 표시함으로써, 종교가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없는 것과 종교가 없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는 부부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종교 여부에 관련 없이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이런 구분을 위해서는 추후 종교를 지니고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종교문제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부부 불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부부생활사건 질문지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로 부부 생활 영역

에 걸쳐 구성하였지만 보다 객관적인 척도로서 기능하기에는 이론적 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주요 생활사건 및 일상 생활사건과 부정적 부부지각 사이의 관련성도 차별적일 수 있는바, 보다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생활사건 척도의 확보도 과제라 할 수 있다. 넷째, 표본의 대표성과 참여자 인원과 관련된 한계가 있다. 먼저 척도의 개발연구로서 특히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본 연구의 제약 상 지역사회에서 접근이 쉬운 부부 집단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운다. 다섯째, 부부관계에서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흔히 질문지 상에서 부부들이 기꺼이 보고하는 의식적인 인지를 타진해 왔다는 점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다 (Arias & Beach, 1987; Fincham 등, 1990). 본 연구에서도 부부들이 질문지 상에서 하는 자기 보고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진행 중인 부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지각 내용의 빠른 처리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왜곡과 자동적 사고에 면밀하게 초점을 맞추어 지각 내용을 평가하지 못하고 다소 광범위하게 부정적 지각을 평가한 측면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면밀한 지각내용의 평가가 요구된다. 다섯째, 부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 지각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각을 유발하는 이면의 부부 신념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어야 한다. 부정적 부부 지각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신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념과 지각이 부부

불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2002). 결혼만족도 검사: 사용자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김진숙, 권석만 (2009a).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 김진숙, 권석만 (2009b).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의 개발. 한국임상심리학회 동계연수회 포스터발표 초록집. 7-8.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 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이현숙. (1999). 인지 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1), 5-29.
- Arias, I., & Beach, S. R. H. (1987).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in the context of marriage. In K. D. O'Leary (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 109-1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each, S. R. H., Sandeen, E. E., & O'Leary, K. D. (1990). *Depression in Marriage: A Model for*

- Etiology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Guilford.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1). A contextual model for advancing the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In G. J. O. Fletcher and F. D. Fincham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127-147. Hillsdale, NJ: Erlbaum.
- Bradbury, T. N., Fincham, F. D., Beach, S. R. H.,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69-576.
- Dattilio, F. M. (1993). Cognitive techniques with couples and families. *The Family Journal*, 1, 51-56.
- Dattilio, F. M. (1994). Families in crisis. In F. M. Dattilio & A. Freeman (Eds.), *Cognitive-behavioral strategies in crisis intervention*, 278-301. New York: Guilford.
- Dattilio, F. M., Epstein, N., & Baucom, D. H. (1998). An Introduction to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ith Couples and Families. In F. M. Dattilio (Ed.), *Case Studie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Systemic & Cognitive Perspectives*, 1-36. New York: Guilford.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Epstein, N., & Baucom, D. H. (1993). Cognitive Factors in Marital Disturbance. In K. S. Dobson & P. C. Kendall (Eds.), *Psychology and Cognition*, 351-385 San Diego: Academic.
- Epstein, N., Baucom, D. H., & Daiuto, A. (1997). Cognitive-Behavioral Couples Therapy. In W. K. Halford & H. J. Mark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riage and couples Interventions*, 415-445. New Jersey: Wiley.
- Epstein, N., Schlesinger, S. E., & Dryden, W. (Eds.). (1988).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ith 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 Floyd, F. J., & Markman, H. J. (1983). Causal inferences for spouse behavior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42-57.
- Jacobson, N. S., Holtzworth-Munroe, A., & Schmalings, K. B. (1989). Marital therapy and spouse involveme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goraphobia, and alcohol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10.
- Kayser, K. (1996). The Marital Disaffection Scale: an inventory for assessing emotional estrangement in marri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1), 83-88.
- O'Leary, K. D., Christian, J. L., & Mendall, N. R. (1994).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3-41.

- Rosch, A. J., Frazier, L. O., & Bowden, S. 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Weiss, R. L., Hops, H., & Patterson, G. R. (1973). A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marital conflict, a technology for altering it, some data for evaluating it. In L. A. Hamerlynck, L. C. Handy, & E. J. Mash (Eds.), *Behavior change: Methodology, concepts and practice*, 309-342. Champaign, IL: Research.
- 1 차원고접수 : 2011. 5. 9.  
심사통과접수 : 2011. 6. 8.  
최종원고접수 : 2011. 6. 24.

## Development of The Marital Distress Perceptions Scale

**Jin Sook Kim**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assessing marital perceptions. A 51 item marital perceptions scale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of scores on 60 preliminary items (five items in each of 12 marital life areas). The factor analysis yielded five factors: commitment-unbalance perception, disregard perception, poor affection perception, religion-discord perception, incompetence percepti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cale was comparatively high. Their correlation with the general marital dissatisfaction scale (sub-scale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was high except for the 'religion-discordant spouses' factor. And the 'poor affection perception' fact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ther factors, which suggested that the factor reflected other aspects of negative marital perceptions. Last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arital problems, marital perceptions, marital dissatisfaction, cognitive-behavioral model*